
 국토교통부	<h1 style="margin: 0;"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0. 11. 3.(화) 총 5매(본문3, 참고2)	
<b>담당 부서</b>	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	<b>담당자</b>	• 과장 김태경, 사무관 방대혁, 주무관 김애란 • ☎ (044) 201-3778, 3782
	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화박물관센터	<b>담당자</b>	• 센터장 김태백, 사무관 이지현 • ☎ (044) 200-3341
<b>보도일시</b>		2020년 11월 4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4.(수)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

### - 한국 김유경/영국 알레한드로 자에라-폴로의 ‘재활용집합체(Recycling Assemblage)’ 선정
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청장 이문기, 이하 행복청)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11월 4일(수) 발표하였다.
- 심사위원회는 장시간 토론 끝에 만장일치로 국내 신진 건축가인 김유경과 스페인 출신의 영국 건축가인 알레한드로 자에라-폴로(Alejandro Zaera-Polo)의 공동 작품인 ‘재활용집합체(Recycling Assemblage)’를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.
- ‘재활용집합체(Recycling Assemblage)’는 건축물 외부에서도 내부에 전시된 건축 파편들을 쉽게 관람할 수 있고, 생태적인 고려를 강조하여 건립과 운영 과정에서 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.
- 이번 심사에는 1차 공모와 동일하게 YO2건축의 김영준 소장,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김성홍 교수, 건국대학교 김준성 교수, 협동원

건축 이민아 소장, 서울대학교 존 흥 교수가 참여하였다.

- 지난 10월 28일(수) 진행된 2차 심사는 5개 업체의 발표와 질의, 심사위원 간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.
- 발표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,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해외 업체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고 코로나-19 사회적 지침에 따라 희망 업체에 한해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
- 심사위원회는 5개의 개성 있는 작품과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역할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으며,
  -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이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5개 박물관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박물관단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외국의 사례를 쫓기보다는 우리만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.
- 당선작 ‘재활용집합체(Recycling Assemblage)’는 우리나라 도시 및 건축의 역사의 전환기에 강력하고 적절한 시대적 해결책을 제안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.
  - 설계안은 건물 자체가 재료의 전시장으로 기능하도록 계획하였으며, 외부공간을 통해 건축 파편과 모형을 전시하여 건축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고, 에너지 소모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 건축이 도전해야 할 지향점을 잘 보여주었다.
- 심사위원회는 “1차 단계에서 방향성이 다른 5개 후보안을 뽑았고, 시간을 가지고 발전시켜 현실에 근접한 안을 기대하였다”면서,
  - “안정되고 세련된, 정비된 설계안 보다는 도전적인 자세로 건축

박물관의 시대적 역할을 제안한 안을 논의 끝에 예비심사위원을 포함하여 만장일치로 결정”하였다고 평가하였다.

-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유물 전수조사와 전시설계에 착수하는 등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‘25년 개관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, 건축과 전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행복청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.
-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“국립도시건축박물관 조성을 통해 국민 모두가 도시와 건축을 문화로서 공유하고 도시와 건축을 만들어 나가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방대혁 사무관(☎044-201-3778) 및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 이지현 사무관(☎044-200-334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

## 참고1

##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공모 당선작

### □ 당선작 : 재활용집합체(Recycling Assemblage)



〈남측 진입야드와 통로에서 바라본 공간〉



〈기획 전시실의 더블하이트 공간〉



〈2층 수장전시에서의 뷰〉



〈상설 전시실〉

\* (대표사: 국내) UKST Architecture 김유경 + (공동: 해외) AZPML Alejandro Zaera-Polo

□ **입선작 : 절합도시, 공간적 내러티브, 인간 생태계의 포용, 타임 스케이프 뮤지엄순위 무관**

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절합도시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공간적 내러티브 Spatial Narratives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주)건축사사무소두올아키텍츠(대표) +이경재 건축설계+스튜디오스웍투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Studio Arc 건축사사무소(대표) + Atelier of Spatial Matters</p>
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인간 생태계의 포용 Embracing Human Ecology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타임 스케이프 뮤지엄 Time Scape Museum</b>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주)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(대표) +STLarchitects, Inc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디자인랩건축사사무소(대표) +(주)디자인랩스튜디오</p>